

2020년 9월 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애플과 월마트의 힘으로 상승 지속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경기 회복까지 현재 정책은 유지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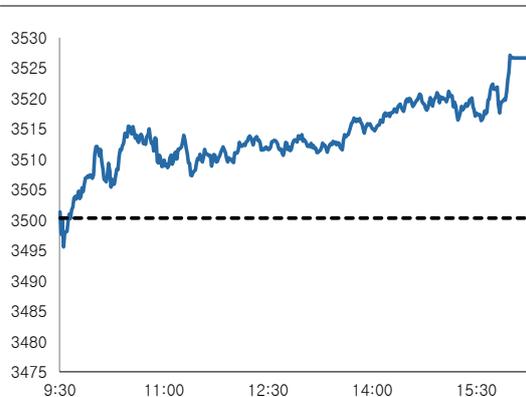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기술주, 산업재 강세 Vs. 제약, 바이오 하락

미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혼조세로 출발 했으나 애플(+3.98%)과 월마트(+6.29%)가 호재성 재료로 급등한 데 힘입어 상승 전환 성공. 더불어 연준이사의 발언과 개선된 제조업지표도 긍정적. 다만, 약가 인하 우려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은 지속(다우 +0.76%, 나스닥 +1.39%, S&P500 +0.75%, 러셀 2000 +1.07%)

미 증시는 ①경제지표 ②연준위원 발언 ③개별 종목 이슈로 변화. 8 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4.2)는 물론 예상(54.5)을 상회한 56.0 으로 발표. 중국에 이어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되자 산업재 업종이 강세. 세부항목을 봐도 신규주문이 전월(61.5) 보다 크게 개선된 67.6 으로 발표돼 향후 전망도 우호적. 이런 가운데 므누신 재무장관이 부양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요청하고 대화를 촉구한 점도 긍정적. 그러나 브레이너드 연준이사는 “영구 해고 및 기업 파산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의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 라며 여전히 경기 위축 우려를 표명. 다만 “코로나로부터 회복 되는 동안 현재의 정책을 유지 해야 한다” 라며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를 시사

한편, 지수를 견인한 것은 이러한 지표와 발언도 있었지만 애플(+3.98%)과 월마트(+6.29%)등 개별 종목들의 강세도 영향. 애플은 10 월에 아이폰 12 를 출시할 것이며 공급업체들에게 7,500 만대에서 8 천만대 생산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JP 모건이 사업의 안정성과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15 달러에서 150 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 월마트는 아마존의 프라임 고객 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한 월마트+ 정책을 9 월 15 일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급등. 무료 배송과 가솔린 할인 등을 포함한 연 98 달러의 멤버십 서비스로 월마트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많음. 반면, 제약, 바이오 업종은 트럼프가 약가 인하를 촉구하고 하원이 약품 가격 조사를 위해 앵비(-3.69%)를 소환하자 제약, 바이오 업종 대부분 하락하는 등 업종 차별화가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목	Close	D-1	지수	종목	Close	D-1
KOSPI	홍콩항셍	2,349.55	+1.01	25,184.85	홍콩항셍	25,184.85	+0.03
KOSDAQ	영국	853.37	+0.60	5,862.05	영국	5,862.05	-1.70
DOW	독일	28,645.66	+0.76	12,974.25	독일	12,974.25	+0.22
NASDAQ	프랑스	11,939.67	+1.39	4,938.10	프랑스	4,938.10	-0.18
S&P 500	스페인	3,526.65	+0.75	6,956.90	스페인	6,956.90	-0.18
상하이종합	그리스	3,410.61	+0.44	639.60	그리스	639.60	+0.89
일본	이탈리아	23,138.07	-0.01	19,595.02	이탈리아	19,595.02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Vs. 제약, 바이오 부진

애플(+3.98%)은 10월에 아이폰 12 발표 및 대규모 생산 요청 소식과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했다. 브로드컴(+3.57%), 스카이웍(+1.11%), 퀴보(+2.50%) 등 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다. NVIDIA(+3.37%)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 출시로 상승했다. 월마트(+6.29%) 아마존과 경쟁을 위한 월마트+멤버십을 9월 15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넷플릭스(+5.10%), 아마존(+1.40%), 알파벳(+1.57%), 치포슬 멕식칸 그릴(+4.73%), 부킹닷컴(+0.96%) 등은 애플과 테슬라 이후 주식분할이 테마로 형성 되었고 다음 주식분할 기대가 높은 종목군이라는 점에서 상승했다.

쑈 비디오(+40.78%)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급등했다. 캐터필라(+2.63%), 디어(+3.63%)등 기계 업종과 3M(+1.09%), 하니웰(+1.46%) 등 산업재 등은 제조업지표 개선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4.67%)는 지난 2월 깜짝 유상증자 발표에 이어 오늘도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가를 발표하자 급락했다. 엠비(-3.69%)은 약가 인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의회가 출석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화이자(-2.41%) 등 제약업종, 길리어드사이언스(-1.38%) 등 바이오, 에봇(-2.67%) 등 의료기기, CVS헬스(-2.96%), 윌그린 부츠(-3.31%) 등도 동반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5%	대형 가치주 ETF(IVE)	-0.03%
에너지섹터 ETF(OIH)	-0.10%	중형 가치주 ETF(IWS)	+0.54%
소매업체 ETF(XRT)	+2.28%	소형 가치주 ETF(IWN)	+1.02%
금융섹터 ETF(XLF)	+0.28%	대형 성장주 ETF(VUG)	+1.53%
기술섹터 ETF(XLK)	+1.91%	중형 성장주 ETF(IWP)	+1.6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75%	소형 성장주 ETF(IWO)	+1.17%
인터넷업체 ETF(FDN)	+3.24%	배당주 ETF(DVY)	-0.04%
리츠업체 ETF(XLRE)	-0.1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9%
주택건설업체 ETF(XHB)	+2.1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5%
바이오섹터 ETF(IBB)	-1.90%	미국 국채 ETF(IEF)	+0.33%
헬스케어 ETF(XLV)	-0.90%	하이일드 ETF(JNK)	+0.48%
곡물 ETF(DBA)	+0.47%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1.96%	Long/short ETF(BTAL)	+0.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4.05	-0.92%	-3.26%	-5.53%
소재	406.58	+2.75%	+3.09%	+6.33%
산업재	662.50	+0.96%	+1.06%	+8.61%
경기소비재	1,267.62	+1.09%	+2.51%	+10.33%
필수소비재	672.24	+0.11%	+1.43%	+3.57%
헬스케어	1,247.56	-0.98%	+0.20%	+0.95%
금융	416.43	+0.22%	+0.67%	+4.61%
IT	2,212.54	+1.86%	+5.35%	+10.90%
커뮤니케이션	211.21	+1.04%	+3.34%	+9.84%
유틸리티	296.06	-1.14%	-1.46%	-4.15%
부동산	224.23	-0.15%	+0.34%	-0.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 차별화 장세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4%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71%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6.1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다.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의 세부항목 중 신규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향후 수출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의 수급 개선 기대를 낮춘다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브레이너드 연준이사가 영구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미국 노동부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고용 개선이 연 0.4% 성장에 그치는 등 느리게 진행 될 것이라는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증시에서 개별 종목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가 이어졌고 그 요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의 등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10월 아이폰 12 발표하고 제조업체들에게 8천만대 생산을 요청했다는 보도로 급등해 관련 종목의 변화 기대가 높다. 미국 산업재도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에 기대 효과로 국내 관련 종목의 변화 기대를 높인다. 그 외 제약, 바이오,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등의 차별화 장세는 한국 증시의 업종별 차별화 가능성을 높인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개선

미국 8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4.2)나 예상(54.5)를 상회한 56.0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61.5→67.6), 생산지수(62.1→63.3), 고용지수(44.3→46.4) 등 대부분이 개선되었다.

미국 7월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지난달 발표(mom -0.5%)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예상(mom +1.0%) 보다는 부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은 2.1% 증가했으나 기업 설비투자를 이야기하는 비주거는 전월 대비 1.0% 둔화되었다. 공공건설은 1.3%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경기 위축이 확산되자 지방정부의 수입 감소로 공공건설 악화를 초래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제한된 등락을 보인 상품시장

국제유가는 중국과 미국 제조업지수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이는 향후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허리케인 피해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지난주 원유 재고 보고서 등을 기다리며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강보합권에 머물렀다.

달러화는 전일 약세를 뒤로 하고 경제지표 호전에 기대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스 총리가 EU 와 브렉시트 관련 협상에서 쉬운 문제부터 합의를 보자며 긍정적인 회담 기대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지표 호전으로 상승 출발 했으나 브레이너드 연준이사가 “영구 해고 및 기업 파산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의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 라며 여전히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장기물 위주로 하락 전환 했다. 물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코로나로부터 회복 되는 동안 현재의 정책을 유지 해야 한다” 라며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을 높인 점도 금리 하락 전환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단기물은 지표 호전에 기대 상승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다.

금은 고용보고서, 베이지북 등 주요 변화 요인을 앞두고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 중국의 제조업지표 개선에 기대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3% 상승했으나 철근은 0.37%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2.76	+0.35	-1.36	Dollar Index	92.314	+0.18	-0.76
브렌트유	45.58	+0.66	-1.53	EUR/USD	1.1915	-0.18	+0.68
금	1,978.90	+0.02	+2.90	USD/JPY	105.94	+0.03	-0.42
은	28.645	+0.18	+8.40	GBP/USD	1.3385	+0.11	+1.77
알루미늄	1,816.50	+0.92	+2.60	USD/CHF	0.9093	+0.62	+0.18
전기동	6,687.50	+0.31	+2.63	AUD/USD	0.7375	-0.01	+2.50
아연	2,553.00	+1.51	+4.40	USD/CAD	1.3074	+0.21	-0.75
옥수수	358.00	+0.07	+0.99	USD/BRL	5.38	-2.07	-2.35
밀	564.00	+2.13	+5.32	USD/CNH	6.836	-0.17	-0.99
대두	954.75	+0.13	+3.75	USD/KRW	1183.00	-0.40	-0.18
커피	131.40	+1.82	+6.87	USD/KRW NDF1M	1186.16	-0.11	-0.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71	-3.43	-1.30	스페인	0.394	-1.20	+1.50
한국	1.570	+4.30	+18.30	포르투갈	0.411	-0.70	+1.00
일본	0.047	-0.40	+1.20	그리스	1.145	+5.50	+5.60
독일	-0.420	-2.30	+1.10	이탈리아	1.034	-5.80	+1.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